



**일등병부대찌개, 전북대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성금**

일등병 부대찌개(대표 유규석, 금암동 소재)는 전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병동의 불우한 환우를 위해 300만 원의 성금을 14일 기탁했다.

이날 성금은 '일등병 부대찌개' 개업기념일이던 지난 11월 11일 부대찌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한끼 식사로부터 마련을 한 것이다.

일등병부대찌개는 지난 14년부터 매년 식당 개업기념일에 모인 수입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9번째 총 3,678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 금액은 지난 14년까지는 전북대병원 사회복지후원회를 통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로 지원됐으며, 14년부터는 전북대병원 호스피스후원회를 통해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와 보호자 및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규석·박진희 부부는 "어려운 이웃과 동참하기 위해 개업기념일마다 잊고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감사드리며 손님 한분 한분의 정성을 모아 주변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지난 19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병원의 불우한 환우와 호스피스 병동의 활동을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보내주시는 성금이 소중하고 뜻깊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 월명·대건신협, 사회공헌재단에 릴레이 기부**

군산 소재 신협인 군산월명신협(이사장 박윤곤), 군산대건신협(이사장 임기환)은 연말을 맞아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각 1,000만원을 기부했다.

신협중앙회 전북본부(강연수 본부장)는 14일 군산월명신협 본점과 군산대건신협 본점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연수 본부장을 비롯해 해당 신협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협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달했다.

강연수 본부장은 "지난 밤 흰 눈이 온 세상에 내린 것처럼 이번 기부금 또한 이웃들에게 소복히 내려앉게 될 바란다. 군산월명신협과 군산대건신협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나눔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군산월명신협 박윤곤 이사장은 "이번 기부나눔과 지역 사회 환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조합이 성장하는 만큼 나눔도 함께 키워가는 따뜻한 든든한 군산월명신협이 되겠다"고 전했다.

군산대건신협 임기환 이사장은 "기부금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기부는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신뢰에서 비롯되었기에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을 위한 군산대건신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내공사, 기록관리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I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IX공사)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22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수준 기등급을 14일 받았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신화 공공기관 등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IX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기록관리 업무기반 및 업무추진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기록관리의 우수성을 보였다.

특히 기록관 서비스 모델 개발 지표로 제출한 국민과 함께하는 IX 기록 체험·전시관 구축 및 운영이 기록관리 제반 확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IX공사는 지난 20년 12월 충청남도 공주시에 공공기관 최초로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을 개관해 공사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해 복합문화공간인 기록 체험·전시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IX공사 오예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전 직원의 지속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수록된 지적(지적) 관련 기록이 후대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전을 이끌 것”**

김현철 대표, 전주영상위원회 4대 부위원장 취임

영화제작사 김현철(쥬티페이스컴퍼니 대표)가 14일(사)전주영상위원회 4대 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됐다.

올해 전주지역에 46편의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을 유치해 전주영화촬영소 운영과 지역 영화인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에 힘쓰는 등 대한민국 영화거점도시 전주시의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영화학교'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을 격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3년의 임기 중 영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전주지역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등 영화·영상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유관기관, 국내외 영화·영상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20여년의 영화 제작 경력을 갖춘 김현철 4대 부위원장이 위촉됨에 따라,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주영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아영 기자

**이승복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퇴임**

"40여년의 공직과 3년간의 경제단체 임원으로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주위의 도움이 있었기에 작지만 소중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들고 아픈 곳을 보듬고 돌려보내 살아야겠습니다"

퇴임식을 가진 전주상공회의소 이승복 사무처장(64)의 소회다.

이 처장은 전북도청에서 국장 2회, 부시장 2회를 역임하는 등 공직자로서 임지전적인 성과를 도출한 후 지난 19년 12월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이 처장은 일자리 창출 각종 건의와 조사연구, 국가검정사업,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많은 현안을 순조롭게 추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년부터 철저한 방역 속에 국가검정을 추진한 결과 수험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 3,000여 명의 일자리를 일선했고 5,000여 명의 교육훈련생 양성 등 지역 일자리 분야에 큰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전주상공회의소가 21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북언론기자개발위원회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코로나 19라는 큰 재난 속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편의공간 제공, 한철운동 등을 전개했고, 지난 6월에는 자서전 '당신 덕분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출판기념회 수익금 전액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도 앞장서 왔다. 이 처장은 "전북도청, 군산시, 김제시 등 많은 곳에서 일을 해왔지만, 전주상공회의소에서의 추억은 또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군, 치매 색채심리 치유 프로그램 첫 도입**

무주군이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색채를 활용한 심리 프로그램이 치매예방과 치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 주민들과 안심센터 컴퓨터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색'으로 마음을 읽다 색채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난 7일까지 진행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운동과 공예, 음악 등 한평생 프로그램외에 색채심리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함으로써 무주지역내 새로운 치매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치매 프로그램은 각 치매안심마을별 11개소에서 실시됐으며, 모두 12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큰 관심속에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색에 담긴 힘을 이해하고 선호하는 색과 비선호하는 색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심리를 알아가며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색을 찾아주는 데 역점을 뒀다.



휴먼컬러컨설팅 박규림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치매예방체조를 비롯해 색의 중요성, 색채심리치유, 공예체험 내용으로 흥미롭게 진행했다는 평가다. 또한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텀블러를 만들어 일회용품 줄이기에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동향은빛문해교실, 수료식 개최**

진안군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에서(면장 양수현)는 14일 은빛문해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은빛문해교실은 2022년 한 해 동안 고령의 나이에 고 학업과정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즐거움을 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7명의 수료자 중 최고령 수료자인 한규인(89세) 어르신은 "배우지 못 한 것이 큰 한이었지만, 은빛문해교실을 다닌 후 마트에서 계산이나 은행 일 처리 관공사에서 글을 읽고 이름도 쓸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학사모도 쓰고 수료식을 하니 마음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양수현 면장은 "힘든 농사일과 노약하신 몸으로 수업에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습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평균 연세 80세의 어르신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면, 제13회 수물민 위로 망향제 봉행**

진안군 용담면(면장 조영희)은 지난 13일 용담면 체련공원 다목적구장 망향제에서 수물민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용담면 망향제를 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허영민 망향제 추진위원장은 "수물민의 실랑의 아픔과 애환을 달래고 고향 이웃 서로가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며 "용담면이 예전 활력 가득한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희 면장은 "코로나19로 그동안 망향제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올해는 많은 사람들과 고향을 바라보며 망향제를 지내게 되었다"며 "용담을 그리워하는 수물민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1년 완공된 용담면은 용담면, 안천면, 상전면 등 6개 읍·면 63개 마을이 수물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장승놀이마루, 집들이·생일잔치 벌여**

진안군 이동놀이터 장승놀이마루는 지난 13일 개관 5주년 기념 및 놀이터 시설 증축에 따른 준공기념행사로 '집들이랑 생일잔치'를 열었다.

장승놀이마루 관계자는 "그동안 10평 규모의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하며 제약적인 공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14평을 추가로 증축하며 어린이들이 보다 흥미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별첨공간 조성 등 이용자 중심 공간이 조성되어 보다 즐거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장승놀이마루 어린이들은 개관 5주년 생일을 축하하고자 어린이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자극 '그건 내 조끼야'를 선보였다.

그동안 놀이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며 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의미 있게 나누고자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를 초청해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아프리카 빈곤 가정에 염소를 지원하는 사업)' 후원금 전달식도 가졌다.

한편 장승놀이마루는 2017년 진안군과 세이브더칠드런의 업무협약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농촌지역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사랑의 동지팔죽 나눔**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는 14일 동지를 앞두고 팔죽을 독거노인 등 전주지역 소외계층 200여 세대에 전달했다.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황정희 회장은 "홀로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팔죽을 준비했다"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200여명의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20여개의 사회봉사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알뜰장 운영, 명절음식 및 김장 나눔, 연탄 전달,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아영 기자

**삼천3동 지사협, 이웃사랑 실천**

전주시 삼천동(동장 김주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종우)는 삼천동 20여 세대들에게 식재료 꾸러미 상자를 전달하는 '사랑 넘치는 삼각관계, 식재료 나눔 꾸러미 사업'을 14일 실시했다.

이달의 식재료 나눔 꾸러미 상자는 사골 떡만두국과 비엔나 떡볶이를 요리해 드실 수 있도록 요리법을 함께 보내며 계란, 어묵, 김, 풀 무, 대파, 마늘, 양파 등 15종의 식재료를 골고루 가득 담아 전달했다.

임종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날씨는 춥지만 준비한 꾸러미로 인해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해지고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관 동장은 "매번 지역주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더 챙기고 복지사각지대없는 삼천3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효자1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겨울이불 전달**

효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살피는 등 동네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순자)는 관내 취약계층 38세대에게 겨울 한파 대비를 위한 따뜻한 겨울 이불을 14일 전달했다.

이번 겨울 이불 지원사업은 효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반기 특화사업으로 난방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38세대를 선정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치는 지원사업이다.

김순자 효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난 8월 홀로어르신들의 낡은 이불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따뜻한 이불로 바꿔드리려 한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